

이상혁, 대만서 '올림픽 모의고사'

6월 1~2일 국제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초청선수로 광주시청 김국영 등 男 400m 계주 올림픽 출전권 노려

'스마일 점퍼' 이상혁(28·용인시청·사진)이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실전 테스트를 치른다.

이상혁은 6월 1~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 출전하고자 30일 오전 한국 육상 동료들과 함께 출국했다.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6월 1일 오후 5시 30분에 시작한다.

대회 주최측은 이상혁을 이번 대회에 나서는 주요 초청 선수로 분류하며 "이상혁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 양발의 크기가 다르다.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하고자 누구보다 노력했다"며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을 거두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번 대회 남자 높이뛰기에는 이상혁을 포함해 16명이 출전한다.

이상혁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 나서는 점퍼 중 개인 최고 2m30 이상의 기록을 보유한 점퍼는 이상혁(2m36)을 포함해 단 3명뿐이다.

개인 최고 2m30의 에토 다카시, 아카마쓰 료이치(이상 일본)가 북병으로 꼽힌다.

이상혁은 한국시간으로 8월 11일에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 '최상의 몸 상태'로 출전하고자 훈련 계획을 짰다.

체력과 근력 훈련에 집중하느라 현재 경기력은 80% 수준이다.

이상혁은 6.7월에 실전을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려 파리 올림픽에서 2m37을 뛰어 금메달을 노리는 전략을 짜고 2024시즌을 보내고 있다.

김국영(광주시청) 등 한국 남자 400m 계주팀은 대만에서 '38초29'를 목표로 달린다.

38초29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노릴 수 있는 기록이다.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계주 400m에는 총 16개 팀이 출전한다.

지난 5~6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14개 팀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결선에 진출한 8개 팀(미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중국, 프랑스, 영국, 자메이카),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6개 팀(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호주, 독일,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이 파리행을 확정했다.

당시 한국은 패자부활전 2조에서 39초17로 8개 팀 중 4위를 해 조 1, 2위가 얻는 파리행 티켓을 놓쳤다.

남은 올림픽 출전권 두 장은 2022년 12월 31~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좋은 기록을 낸 팀이 받는다.

세계계주선수권대회에서 파리 올림픽 진출권을 얻지 못한 나라 중 브라질(38초19), 트리니다드 토바고(38초30)가 기록 순위 1, 2위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은 6월 30일 안에 38초29를 달성해야 파리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해머던지기 동메달리스트 김태희, 멀리뛰기 유정미, 이희진, 여자 200m 신현진, 김소은, 남자 해머던지기 이운철, 110m 허들 김경태 등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만 대회에 나선다.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200m 금메달리스트 안드레이 더그라스,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해머던지기 챔피언 이선 카츠버그(이상 캐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여자 100m 허들 2위 니아 알리(미국)도 이상혁과 함께 '특별 선수'로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스마일 점퍼' 이상혁이 6월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2024 대만 국제육상선수권대회에서 실전 테스트를 갖는다. 사진은 체력 훈련을 하는 이상혁. /연합뉴스



'스포츠버스' 체험 전남 6개 학교 선정

전남 지역 6개 학교가 스포츠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스포츠버스' 체험에 나선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2024년도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사업에 ▲고흥 영남초 ▲고흥 동강중 ▲강진 칠량중 ▲영광 군남초 ▲신안 증도초 ▲여수 돌산중앙중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학교 또는 분교를 대상으로 도서·벽지·접적 지역 650개 학교 중 전남 6곳 포함 35곳이 선정됐다.

대한체육회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남도체육회는 스포츠버스를 몰고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해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버스는 간이 운동 장비 등을 갖춰 있으며, 스포츠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한 VR 체험·작은 운동회·소규모 부대행사가 진행 가능한 형태로 개조됐다.

도체육회는 30일 영광 군남초를 시작으로 7월 중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전남에서 6개교가 밝히며 전국 3번째로 많은 스포츠버스 선정 결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스포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주민들께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광주시에서는 광주중앙초가 유일하게 이번 사업에 선정돼 오는 11월 2시간 동안 스포츠버스 체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청 우수팀, 국가대표 꺾고 금메달

박정열·김영준·장민규 3인방 전국종별우수선수권 제패 쾌거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팀(사진)이 '제7회 전국종별우수선수권대회'에서 고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이며 금메달을 휩쓸었다.

전남도청 우수팀 투로 '3인방' 박정열(장권), 김영준(남권), 장민규(태극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경북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현 국가대표들을 밀어내고 각 종목 정상에 올랐다.

박정열은 허리부상 등으로 좋지 않은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박정열은 장권(중국 북방무술) 종목에서 9.6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3월 열린 '제36회 회장배전국우수선수권대회'에서도 장권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영준은 남권(중국 남방무술) 종목에서 고난이도 기술들을 가벼운 몸놀림으로 여윌듯 성공하며 9.67이라는 높은 점수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민규는 태극권에서 우수의 종주국인 중국의 선수들도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등공비각'과 '등공정척'에 이은 '기도각작지' 등 최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완벽하게 선보이며 9.68로 금메달의 주인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홍진주, KLPGA 챔피언스투어 우승

상금왕 2연패 시동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챔피언스투어 2023시즌 상금왕 홍진주가 올해 첫 우승을 달성했다.

홍진주는 30일 대구 군위군 이지스카이 컨트리클럽(파72·5773야드)에서 열린 KLPGA 2024 SBS골프 챔피언스투어 with 이지스카이 CC 1차전(총상금 7000만원) 최종 2라운드에서 버디만 8개를 쓸어 담으며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2언더파 132타를 기록한 홍진주는 2위 홍희선(7언더파 137타)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은 1050만원이다.

지난해 챔피언스투어에 데뷔해 2승을 수확해 상금왕에 올랐던 홍진주는 이번 시즌 첫 승과 함께 챔피언스투어 통산 3승째를 거뒀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투어 3개 대회에서 단독 2위, 공동 3위, 그리고 우승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홍진주는 상금 1위(2240만원)로 올라섰다.

홍진주는 "올 시즌 샷 감각이 좋았는데 앞선 2개 대회에서 우승을 놓쳐 아쉬웠으나 이번 대회에서 아쉬움을 말끔하게 씻었다"면서 "올해도 상금왕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시즌 3승에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진주, 홍희선에 이어 조운주, 우선화, 이운

희가 공동 3위(5언더파 139타)에 올랐고, 이번 시즌 앞선 두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한 최혜정은 공동 13위(2언더파 142타)로 마쳤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4-06-01(토) ~ 2024-06-30(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이창훈 개인전 <도시의 비베로>
 일시 : 2024-06-07(금) ~ 2024-07-07(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